Press Release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09.11.2
제공자 :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, 품종심사과
과 장 : 심재규(유통과), 조일호(심사과)
사무관 : 임정수(〃), 이승인(〃)
전 화 : 031-467-0111(대표전화)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있음(6P)

이 자료는 2009년 11월 3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『품종보호상담센터』 설치운영 및 '09년산 벼 보급종 종자수매 추진

□ 최근 증가하고 있는 품종보호 분쟁 관련 상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「품종보호 상담센터」가 11월 5일 국립종자원(원장 김창현) 내에 개설된다.

○ '신품종(新品種) 지식재산권'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품종보호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에도 국립종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국립종자원은 기존의 '육종가지원센터'와 '종합민원실' 등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여「품종보호 상담센터」로 개편하고, 소관 사항별 전문 담당관을 지정하여 분야 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

○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전문 담당관 제도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품종보호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[1]이다.

□ 우리나라는 최근 연간 품종보호 출원 건수가 500여 건에 이르고, 관련 침해 분쟁도 이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.

1) 일본의 G-men, 네덜란드의 Variety Tracer 제도.

○ 특히,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자가 직접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, 상대적으로 영세한 출원인과 권리자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해 왔다.

○ 그러나 앞으로는 국립종자원이 보호권자와 On-Off 라인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필요시에는 조정과 침해소송 등 보호권자가 권리를 적극 방어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분쟁해결 방안을 상담·안내 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국립종자원은 보관종자를 이용한 분쟁 대비시험과 유전자 검정절차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조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김 원장은 "우리나라에 품종보호제도가 1998년 도입되어, 10년이 경과하면서 앞으로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종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에 어울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" 라고 밝혔다.

~~~○~~~○~~~○~~~○~~~○~~~○~~~○~~~

□ 한편 국립종자원은 지난 10월7일부터 금년산 벼 보급종 종자수매를 12월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올해 수매할 벼 종자는 고품질 벼 보급종 종자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증가로 지난해 27,742톤보다 11%가 늘어난 29,547톤이며 현재까지 순조롭게 수매가 진행되어 계획량의 27%인 7,947톤을 수매하였다.

○ 종자수매는 포장검사와 순도·수분·발아율·종자전염병 등 품질기준을 검사하여 합격품만 수매한다.
~~~

□ 수매한 종자는 엄격한 정선과 소독과정을 거쳐 고품질의 벼 종자만 내년 1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.

○ 내년에 공급할 벼 정부 보급종은 <일미> <호품> 등 25품종이며 공급물량은 금년보다 2,400톤이 늘어난 27,100톤으로 벼 전체 파종 면적의 60%('09년 54%)에 해당하는 물량이다.

□ 앞으로 국립종자원은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 좋은 품종위주로 종자를 생산·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

○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등 우수 경영체에 대한 우선 공급량을 늘려 나가고,

○ 농업인 및 RPC를 대상으로 선호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종이 공급되도록 주문·공급시스템을 구축하며,

○ 보급종 종자의 정밀한 정선과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품질 좋은 종자를 연차적으로 확대·공급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

<참고자료>

품종보호 상담센터 설치·운영 및 고품질 벼 보급종 생산·공급

1. 품종보호 상담센터 설치·운영(안)

❑ 현황 및 문제점

○ 최근 품종보호권 인식 확대 및 소비자 권리 강화 추세에 따라 종자관련 분쟁 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임
- 유통종자의 분쟁 발생추이 : 2건('05) → 3건('06) → 3건('07) → 12건('08) → 8건('09 상반기)
- 품종보호 침해분쟁의 발생추이 : 1건('07년 이전) → 4건('08~'09)
- 종자분쟁과 관련된 시험·분석·감정 등을 우리원에 요청하는 의뢰 건수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음

○ 현재 품종보호 침해 사안 발생 시 해결방안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조정절차,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절차 또는 침해소송 등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
- 품종보호권 침해 사안은 침해를 인지한 품종보호권자가 직접 조정 및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침해 해결을 위한 접근성, 비용부담, 장기간의 시간소모, 절차 이용에 대한 경직성이 존재함

○ 품종보호권 부여 기관으로써 침해 발생 시 보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신속·용이한 분쟁해결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

❑ 설치목적

○ 국립종자원 내에 「품종보호 상담센터」를 설치 운영
- 육종가 지원 및 품종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지원 활동
- 품종보호 침해 의심 건에 대한 상담, 품종보호 침해 예방, 침해 분쟁의 원만·신속한 해결을 도모

❑ 운영계획

○ 품종보호 권리분쟁 관련 On-Off 상담 센터 개설

- 담당관을 지정하여 각종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 제공

○ 침해분쟁 사안에 대해 신속·용이한 조정 절차 유도로 실효성 있는 해결 도모

- 작물별 조사담당관을 지정하여 자료조사, 재배시험, DNA 검정 등 필요 절차 실시
-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정결과 제시로 분쟁 조정 및 해소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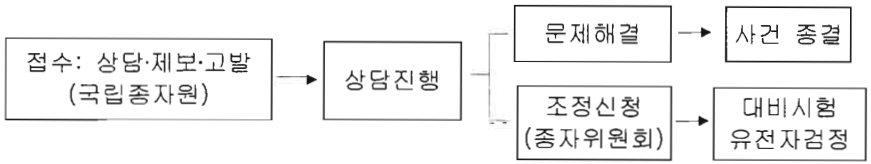
❑ 운영 추진체계

○ 계획수립 및 조직구성

- 담당관 1 : 식량/채소/특용/버섯 품종보호 분야
- 담당관 2 : 화훼/과수 품종보호 분야

○ 상담센터 개설(**예정 : 11월 5일**)

○ 처리 절차



○ 추진 방법

- 오프라인 :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에 「품종보호 상담센터」 개설
- 온라인 : 우리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(퀵 메뉴)

○ 홍보

- 홈페이지에 「품종보호 상담센터」 개설 및 상담전화 안내
  - 식량/채소/특용/버섯 분야 상담전화: 031-467-0112
  - 화훼/과수 분야 상담전화: 031-467-0110

[첨부] 홈페이지 품종보호 상담 온라인-창구 개설

■ 기관 홈페이지에 품종보호상담 바로가기 버튼 추가

■ 서브페이지 품종보호상담 게시판

2. '09년 벼 보급종 수매 추진상황

❑ 연도별 벼 보급종 공급상황

○ 고품질 정부 벼 보급종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증가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'10년에는 전체 수요량의 60%까지 공급할 계획임

	2005	2007	2008	2009	2010
공급량(천톤)	15.7	19.7	22.5	24.6	27.1
보 급 율 (%)	33	42	48	54	60

❑ '09년도 벼 보급종 수매 추진상황

○ 금년산 벼 보급종 수매는 지난 10.7일부터 시작하여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계획량의 27%를 수매하였음

○ 수매는 대용량 포장재로 산물수매를 하고 있으며 수매장소는 국립종자원 정선공장 또는 현장수매를 병행하여 농업인의 편의도모

○ 수매한 종자는 엄격한 정선과 소독과정을 거쳐 내년도 종자용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

< 수매 계획 및 추진 실적 >

(단위 : 톤, %)

'09년 수매			'08년 수매			수매기간
계 획	실 적(A)	진 도	전 체	동 기(B)	A/B	
29,547	7,947	27	27,699	9,719	82	10.7~12.22

❑ 금후 추진 계획

○ 벼 보급종 수매는 계획기간인 12.22일 이전까지 최대한 조기수매 완료

○ 수매종자의 정밀정선 및 철저한 종자 소독 작업 : 11월 중순부터

- 벼 보급종의 공급량 확대에 따라 종자 정선기간을 1개월 앞당겨 실시

○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보급종 신청 접수 : '09. 11. 6일부터

○ 벼 보급종 공급 : '10. 1. 10(일부 지역은 12월 중순부터 공급)

<참 고>

벼 보급종 생산·공급체계

□ 종자생산

○ 국립종자원과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통해 품종 및 생산물량 결정

○ 종자생산 후보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농가와 포장을 선정하고 생산대행확인서를 발급하며 농가에 원종 배부 및 생산교육 실시

□ 종자수매

○ 수확전 포장검사와 이물·이품종 혼입방지를 위해 수확 후 수매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만 수매

○ 수매는 산물 및 포장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대부분 산물수매 실시

□ 종자정선

○ 대략정선을 통해 크고 작은 종자, 협잡물, 미숙종자 제거

○ 수분함량 14%까지 열풍순환에 의한 반복 건조 후 바람과 체를 이용한 정밀정선을 통해 크고 작은 종자 제거

○ 비중정선을 통해 정상종자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종자 제거

○ 종자 전염 및 토양 전염병균으로부터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독

□ 종자공급

○ 국립종자원이 행정기관을 통해 종자공급예시를 하고 농가로부터 종자신청을 받아 농협계통기관을 통해 공급(1.10~3.30)

-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 등에 우선 공급하고 일반농가에 공급

3.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(UPOV) 총회 의장 피선

❑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(UPOV :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ties of Plant)

○ 식물식품종에 대한 국가간 협력과 법규 및 제도의 조화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정부간 조직(회원국 '09.10월 현재 67개국)

○ 농작물(TWA), 과수(TWF), 관상식물(TWO), 채소(TWV), 컴퓨터 프로그램(TWC), 분자생물학(BMT) 등 6개 실무기술위원회가 있음

❑ UPOV 총회 의장 피선 : 한국대표(국립종자원 농업연구관 최근진)

○ 제43차 총회에서 **임기** 3년(2010~2012년)의 차기 의장으로 선출(10.22)

○ 그 동안 의장국은 일본(아시아), 스웨덴(유럽), 멕시코(아메리카), 호주(2007-2009년)(대양주)에서 역임

❑ 총회 기능(UPOV 1991협약 제26(5))

○ UPOV의 발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연구

○ 사무총장 및 필요시 사무차장의 임명과 이들의 임명조건 결정

○ UPOV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검토 및 장래 사업계획 수립

※ 사무국 : 사무총장, 사무차장 등 11명으로 구성됨

❑ 평가 및 향후 계획

○ 품종보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, UPOV 기술위원회 적극 참여 및 국내 유치(7회), 대(對) 개도국 기술연수 등 회원국으로서 활동에 대한 성과로 국가위상 제고

○ 총회 의장 선임을 계기로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및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

※ 한국의 UPOV 가입 : 2002. 1. 7(제50번째 회원국)